

영 화



<한지민>



<김명민>



<정진영>

# 사극의 새바람

액션·코믹·추리·3D 등 소재 다양... '혈투'·'평양성' 등 줄줄이 개봉

다양한 소재의 사극이 몰려온다. 올해 '춘향전'을 새롭게 해석한 '방자전'이 관객동원에 성공한 가운데 총무로에 사극 바람이 불고 있다.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혈투'는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액션 사극이다. '혈투'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가까스로 살아남은 죽마고우 현명(김명민)과 도영(정진영) 그리고 탈영병 두수가 청군의 추격을 받고 서로에게 창을 겨누며 벌이는 싸움을 그린 작품.

눈에 띄는 건 캐스팅이다. '세븐 데이즈'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후 '작전', '맨발의 꿈' 등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준 박희순과 '마더' '식객' 등에 출연했던 진구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 '의형제' 등에서 감칠맛 나는 감초 연기를 보여준 고창석이 가세했다. 시나리오까지 쓴 박훈정 감독의 데뷔작이다. 박감독은 최민식·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를 집필했으며 '혈투'와 같은 날 개봉 예정인 류승완 감독, 류승범·황정민 주연의 '부당거래'

시나리오도 쓴 재간꾼이다. 한창 촬영중인 '평양성'은 코믹 사극이다. '황산벌',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의 이준의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평양성'은 백제를 멸망시킨 황산벌 전투로부터 8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황산벌'에 등장, 막강한 웃음 폭탄을 던졌던 '거시기'가 훨씬 큰 비중으로 다시 출연, 익살과 해학으로 극을 끌고 간다. 김유신역으로 정진영이 출연하며 이문식이 '거시기'를 다시 맡았다. 드라마에서 차가운 도사녀를 주로 맡았던 선우선이 이문식과 예정 전선을 형성하는 감수역으로 출연하며 연기과 배우 류승룡도 함께 호흡을 맞춘다. 김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현의 노래'도 기대작 중 하나다. 순천 출신으로 '동승'을 만든 주경중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현의 노래'는 같이 지배하던 삼국시대에 소리의 세계를 꽃피운 악공 우륵의 삶을 그린 영화로 150억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특히 이 작품은 3ality사의 3D 촬영 시스템을 이용, 국내 곳곳의 비경과 화려한 액션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혈투>

가야국 출신 악사 우륵 역의 이성재, 신라의 장군 이사부 역의 안성기가 캐스팅됐다. 여주인공인 가야시대 최고 춤꾼 아라 역으로는 사극 드라마 '추노'에 출연했던 이다혜가 캐스팅돼 총무로에 정식 데뷔한다. 또 팜프파탈 영화 역의 문정희와 영화 '과속 스캔들'의 왕석현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현의 노래'는 순천만, 담양, 경남 합천 황매산과 충남 부여 등에서 촬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봉될 예정이다. '조선 명탐정 정약용'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김탁환 작가의 추리소설 '열녀문의 비밀'을 영화화 한 이 작품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여성의

자살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타이틀 롤은 연기와 배우 김명민이 맡았다. 드라마 '하얀거탑'과 '베토벤 바이러스', 영화 '내 사람 내 곁에'와 '파괴된 사나이' 등을 통해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던 김명민의 연기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사극은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이후 처음이다. 영화 '해부학 교실' 이후 3년만에 영화계로 컴백한 배우 한지민이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여자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다. 여기에 오달수·이재용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든든히 뒤를 받친다. 메가폰은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된 '올드미스 다이어리'를 모두 연출한 김석윤 감독이 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심야의 FM'

수애·유지태의 숨막히는 스릴러  
제한된 2시간 놀과의 사투가 시작된다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방송하는 거야

라디오 생방송이 진행되는 2시간 안에 사랑하는 딸을 구해야 하는 DJ와 연쇄살인범의 대결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5년간 진행해 오던 심야 음악프로그램의 마지막 방송일, 만감이 교차하던 인기 DJ 선영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연쇄살인마 동수. 선영이 진행하는 방송의 오랜 팬이었다고 고백한 그는, 선영의 딸과 여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생방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은 멈출 수 없고, 살인마에게 붙잡혀 있는 가족을 구해야

만 하는 지옥같은 두 시간을 보내는 여자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불꽃처럼 내비처럼' '넌과 함께' 등에서 단아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수애가 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영으로 출연하며 '올드보이' 이후 오랜만에 악역으로 돌아온 유지태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걸스카우트'의 김삼만 감독이 각본을 쓰고 메가폰을 잡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www.kjhr.com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 국제보청기

**본 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울 연인과 함께!!

**상무점**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방가?방가! (12세)	1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2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2관 해결사 (15세)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3관 방가?방가! (12세)
4관 경우강호 (15세)	4관 슈퍼베드 (전체/취지민트이불4184)
5관 22블렛 (18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6관 무적자 (15세)	6관 무적자 (15세)
7관 해결사 (15세)/심야의FM (18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8관 슈퍼베드 (전체)/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9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9관 아저씨 (18세)/해결사 (15세)
10관 심야의FM (18세)	10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상당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 1588 - 7941

항도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성영 / 호남최대주자랑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심야의FM (18세)	최고급관
2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3관 경우강호 (15세)	
4관 22블렛 (18세)	
5관 심야의FM (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9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 (12세)
2관 적인걸-촉천무후의 비밀 (12세)
3관 경우강호 (15세)
4관 방가?방가! (12세)/무적자 (15세)/아저씨 (18세)
5관 22블렛 (18세)
6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8관 심야의FM (18세)

색깔있는 영화선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